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내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김진영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책임연구원
jinyoungkim@cni.re.kr

이 연구는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로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천군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설문분석
3. 설문분석 요약
4. 정책제언

요약

- 본 연구는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임
-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천군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서천군 거주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서천군 거주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거주자의 해당 지역 거주지 만족도보다도 낮은 수준임
- 서천군 거주자 집단은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서천군 비거주자 집단은 주거시설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선택
- 서천군 거주자 집단 중 서천군 거주기간이 짧거나, 학력이 높은 집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해당집단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이 50%를 넘는 수준임
- 서천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대상 집단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이들을 서천군에 정주시키는 전략 정책추진이 필요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성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필요

0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는 서천군에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 서천군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같은 연구기관이 입지해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가 건립 중에 있음
 - 또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음
- =>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어,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해양바이오 산업의 산업화 및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

- 국립생태원(2013년 12월 개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2015년 4월 개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천군의 정주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 있음
 - 서천군에 두 개의 국립기관이 입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 있음(관련 인터뷰 내용)
 - 원인으로 서천군 관내 정주여건의 부족을 지적
 - 서천군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두 개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 있음

- 앞으로 조성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활성화와 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임
 -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천군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향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02 설문 분석

1. 표본의 일반적 성격

- 본 연구에서는 국립생태원 146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2부가 수거되어 총 228부의 응답지가 분석에 사용됨
-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응답지에는 2개 연구기관의 연구원(研究員)들 뿐만 아니라, 비연구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음
 - 2개 기관은 지역협력차원에서 다수의 현지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
- (응답자의 거주지 현황) 응답자의 대부분은 충청남도(66명, 28.9%)와 전라북도(155명, 68.0%)에 거주하고 있음
 - 응답자들의 거주지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산시에 가장 많은 144명(63.2%)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천군에 두 번째로 많은 65명(28.5%)이 거주하고 있음

[표 1] 응답자의 거주지 현황

단위 : 명, %

거주지	거주자	비율	거주지	거주자	비율
충청남도	66	28.9%	서천군	65	28.5%
			부여군	1	0.4%
전라북도	155	68.0%	군산시	144	63.2%

			전주시	6	2.6%
			익산시	4	1.8%
			완주군	1	0.4%
기타 ¹⁾	7	3.1%			
계	228	100.0%			

* 주 1) 기타에는 대전(1), 세종(4), 전남(1), 충북(1) 포함

- (출퇴근 교통수단 및 통근시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교통수단은 자가용으로 나타났으며(216명, 94.7%), 통근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89.0%)
 -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은 5.3%에 지나지 않음
 -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2명, 0.9%) ⇒ 이는 대중교통(망)의 미비를 의미할 수 있음
 - 통근시간은 대부분의 경우 거주지에서 30분 이내에 출퇴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89.0%)
 - 가장 많은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130분으로 나타남(1건)

[표 2] 응답자의 출퇴근 교통수단 및 통근시간

단위 : 명, %					
교통수단	빈도	비율	통근시간	빈도	비율
자가용	216	94.7%	~ 30분	202	89.0%
버스	2	0.9%	31분~ 60분	20	8.8%
자전거 ¹⁾	5	2.2%	61분 이상	5	2.2%
도보	2	0.9%	계 ²⁾	227	100.0%
기타	3	1.3%			
계	228				

* 주 1) “자전거”에 오토바이(1) 포함. “기타”에는 카풀 및 버스(1), 동승(1), 무응답(1) 포함

주 2) 회수된 설문지 228부 중, 본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1부 제외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성별) 본 설문에 응답한 유효응답자 중 남성은 144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68명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응답자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

성별	빈도	비율
남성	144	67.9%
여성	68	32.1%
계	212	

* 무응답 16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함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연령) 본 설문에 응답한 유효응답자 총 215명 중, 30대(30세 이상 ~ 40세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86명)로 가장 많았고, 40대(40세 이상 ~ 50세 미만)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62명, 27.2%)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단위 : 명, %

연령대	빈도	비율
20세 이상 ~ 30세 미만	22	10.2%
30세 이상 ~ 40세 미만	86	40.0%
40세 이상 ~ 50세 미만	62	28.8%
50세 이상 ~ 60세 미만	23	10.7%
60세 이상	22	10.2%
전체	215	

* 무응답 13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학력) 유효응답자의 80.3%인 171명은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남
 - 유효응답자의 30.0%(64명)가 대졸, 25.4%(54명)가 박사취득, 24.9%(53명)가 석사취득으로 나타남

[표 5] 응답자의 학력 분포

단위 : 명, %

학력	빈도	비율
고졸 미만	7	3.3%
고졸	26	12.2%
전문대졸	9	4.2%
대졸	64	30.0%
석사취득	53	24.9%
박사취득	54	25.4%
전체	213	

* 무응답 15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

2. 서천군 거주자에 대한 설문

- (거주기간)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65명) 중 서천군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2명, 33.8%)

– 30년 초과 거주자도 27.7%(21명)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이유) 서천군 거주자의 경우, 서천군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이 서천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반(35명, 53.8%)을 넘고 있음

–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은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32.3%(21명)를 차지하고 있음

-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의 서천군 거주기간을 분석하면 ‘5년 초과 ~ 10년 이하’의 경우가 2명이고, ‘10년 초과’의 경우가 19명으로 나타남

–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 선호, 자연환경 등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6] 응답자의 서천군 거주기간

단위 : 명, %

거주기간	빈도	비율
~5년 이하	22	33.8%
~10년 이하	9	13.8%
~15년 이하	0	0.0%
~20년 이하	4	6.2%
~25년 이하	3	4.6%
~30년 이하	6	9.2%
~40년 이하	3	4.6%
~50년 이하	2	3.1%
~60년 이하	8	12.3%
60년 초과	8	12.3%
	65	

[표 7] 서천군 거주자의 서천군 거주 이유

단위 : 명, %

거주이유	빈도	비율
직장이 서천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5	53.8%
고향이기 때문에	21	32.3%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2	3.1%
개인적 선호 때문에	5	7.7%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2	3.1%

-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 서천군 거주자의 서천군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의 수준에서 부정적인 응답(불만족)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임
 - 서천군의 정주여건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이상(55.4%)은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였음
 - ‘만족’보다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불만족(“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과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의 합)이라는 응답이 29.2%로 만족(“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과 “만족스럽다”는 응답의 합)이라는 응답(15.4%)을 앞지르고 있음

[표 8]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

단위 : 명, %		
만족 정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스럽다	3	4.6%
불만족스럽다	16	24.6%
보통이다	36	55.4%
만족스럽다	6	9.2%
매우 만족스럽다	4	6.2%
	65	100.0%

- (서천군 거주기간과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 서천군 거주자의 서천군 거주기간과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서천군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천군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의 집단 22명 중 ‘만족’과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은 없으며, 부정적(‘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합)인 응답이 절반(11명)을 차지하고 있음

[표 9] 서천군 거주기간과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와의 관계

단위 : 명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서천군 거주기간	5년 이하	2	9	11	0	0	22
	5년 초과 ~ 10년 이하	0	3	4	2	0	9
	10년 초과	1	4	21	4	4	34
계		3	16	36	6	4	65

- (학력과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 학력과 서천군 정주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석사 취득 이상’인 집단에서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천군 거주자 중 학력이 ‘석사 취득 이상’인 집단의 경우,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가 “불만족”스러운 편인 응답(‘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인 응답의 합)이 절반을 넘는 53.8%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전문대졸 이하’인 집단은 “만족”스러운 편인 응답(‘만족’과 ‘매우 만족’인 응답의 합)이 22.6%로 “불만족”스러운 편인 응답 19.4%보다 많고
 - ‘대졸’인 집단은 “만족”스러운 편인 응답과 “불만족”스러운 편인 응답이 각각 14.3%와 21.4%로 나타남

[표 10] 학력과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와의 관계

단위 : 명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학력	전문대졸 이하	1 3.2%	5 16.1%	18 58.1%	3 9.7%	4 12.9%	31 100.0%
	대졸	0 0.0%	3 21.4%	9 64.3%	2 14.3%	0 0.0%	14 100.0%
	석사 취득 이상	2 15.4%	5 38.5%	6 46.2%	0 0.0%	0 0.0%	13 100.0%
계		3 5.2%	13 22.4%	33 56.9%	5 8.6%	4 6.9%	58 100.0%

- (불편시설) 서천군의 정주시설 중에서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설은 의료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로 파악됨
 -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시설은 의료시설임
 - 응답자의 37.1%인 23명이 가장 불편한 시설로 응답
 - 다음으로 불편해 하는 시설은 주거시설과 교통시설임
 - 주거시설은 14명(22.6%)이 가장 불편한 시설로 응답하였고, 교통시설은 12명(19.4%)이 가장 불편한 시설로 응답
 - 이외에도 상업·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도 불편한 시설이라고 응답함

[표 11] 서천군 정주시설 중 불편시설 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시설	14	22.6%	5	8.5%	5	8.5%
교통시설	12	19.4%	6	10.2%	8	13.6%
교육시설	0	0.0%	0	0.0%	2	3.4%
보육시설	1	1.6%	0	0.0%	1	1.7%
상업, 편의시설	7	11.3%	17	28.8%	11	18.6%
의료시설	23	37.1%	14	23.7%	4	6.8%
공원시설	0	0.0%	7	11.9%	3	5.1%
복지시설	1	1.6%	3	5.1%	9	15.3%
문화, 체육시설	4	6.5%	7	11.9%	16	27.1%
계	62	100.0%	59	100.0%	59	100.0%

* 각 우선순위마다 “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응답 설문과 응답불량 설문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 (서천군 거주기간과 불편시설과의 관계) 서천군 거주자의 서천군 거주기간과 불편시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에 따라 불편하게 느끼는 시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서천군에 오래 거주한 집단(거주기간 10년 초과 집단)의 경우(유효응답 32명), 의료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다른 시설에 대한 불편보다 큰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음(15명, 46.9%)
- 다음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설은 주거시설(6명, 18.8%)과 교통시설(6명, 18.8%)로 나타남
- 서천군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유효응답 21명), 의료시설(6명, 28.6%), 상업·편의 시설(5명, 23.8%), 교통시설(5명, 23.8%)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음

[표 12] 서천군 거주기간과 불편한 시설과의 관계

단위 : 명

		불편한 시설									
		주거 시설	교통 시설	교육 시설	보육 시설	상업,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공원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체육 시설	전체
서천군 거주기간	5년 이하	3	5	0	1	5	6	0	0	1	21
	5년 초과 ~ 10년 이하	5	1	0	0	1	2	0	0	0	9
	10년 초과	6	6	0	0	1	15	0	1	3	32
계		14	12	0	1	7	23	0	1	4	62

* “가장 불편한 시설”에 대한 응답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 (학력과 불편시설과의 관계) 학력과 불편시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라 불편하게 느끼는 시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전문대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의 경우,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의료시설’로 각각 41.4%와 46.2%가 응답하였음
 - ‘의료시설’의 경우, ‘석사취득 이상’ 집단에서는 15.4%로서 네 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하는 수준임
 - ‘석사 취득 이상’ 집단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주거시설’로 나타남(30.8%가 응답)

[표 13] 학력과 불편한 시설과의 관계

단위 : 명

		불편한 시설									
		주거 시설	교통 시설	교육 시설	보육 시설	상업,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공원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체육 시설	전체
학 력	전문대졸 이하	6 20.7%	5 17.2%	0 0.0%	0 0.0%	3 10.3%	12 41.4%	0 0.0%	1 3.4%	2 6.9%	29 100%
	대졸	2 15.4%	2 15.4%	0 0.0%	0 0.0%	1 7.7%	6 46.2%	0 0.0%	0 0.0%	2 15.4%	13 100%
	석사 취득 이상	4 30.8%	3 23.1%	0 0.0%	1 7.7%	3 23.1%	2 15.4%	0 0.0%	0 0.0%	0 0.0%	13 100%
계		12 21.8%	10 18.2%	0 0.0%	1 1.8%	7 12.7%	20 36.4%	0 0.0%	1 1.8%	4 7.3%	55 100%

* “가장 불편한 시설”에 대한 응답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 (필요시설) 서천군의 정주시설 중에서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의료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로 파악됨. 대체적으로 불편시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서천군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의료시설로 나타남

- 응답자의 45.%(28명)가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응답

－ 다음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은 주거시설과 교통시설임

- 주거시설은 17명(22.6%)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응답을 하였고, 교통시설은 11명(17.7%)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응답

－ 이외에도 상업·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함

[표 14] 서천군 정주시설 중 필요시설 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시설	14	22.6%	8	13.6%	4	6.9%
교통시설	11	17.7%	12	20.3%	5	8.6%
교육시설	2	3.2%	1	1.7%	1	1.7%
보육시설	0	0.0%	0	0.0%	1	1.7%
상업, 편의시설	4	6.5%	12	20.3%	14	24.1%
의료시설	28	45.2%	11	18.6%	4	6.9%

공원시설	1	1.6%	5	8.5%	5	8.6%
복지시설	0	0.0%	6	10.2%	10	17.2%
문화, 체육시설	2	3.2%	4	6.8%	14	24.1%
계	62	100.0%	59	100.0%	58	100.0%

* 각 우선순위마다 “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응답 설문과 응답불량 설문을 제외하였기 때문임

● (서천군 거주기간과 필요시설과의 관계) 서천군 거주자의 서천군 거주기간과 필요시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간에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음

– 서천군에 오래 거주한 집단(거주기간 10년 초과 집단)의 경우(유효응답 31명), 의료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19명, 61.3%)

•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주거시설(6명, 19.4%)과 교통시설(5명, 16.1%)로 나타남

– 서천군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유효응답 22명), 의료시설(7명, 31.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주거시설, 교통시설, 상업·편의시설 등(각각 4명, 18.2%)으로 나타남

– 서천군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상업·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15] 서천군 거주기간과 필요한 시설과의 관계

단위 : 명

		필요한 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보육시설	상업, 편의시설	의료시설	공원시설	복지시설	문화, 체육시설	전체
서천군 거주기간	5년 이하	4	4	2	0	4	7	0	0	1	22
	5년 초과 ~ 10년 이하	4	2	0	0	0	2	1	0	0	9
	10년 초과	6	5	0	0	0	19	0	0	1	31
계		14	11	2	0	4	28	1	0	2	62

*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응답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 (학력과 필요시설과의 관계) 학력과 필요시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문대졸 이하’ 집단의 경우 절대 다수(57.1%)가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
 - ‘대졸’ 집단 역시 ‘의료시설’이 가장 높은 응답(42.9%)을 차지함
 - ‘석사 취득 이상’ 집단에서 ‘주거시설’, ‘교통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상업·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골고루 나옴
 - ‘주거시설’, ‘교통시설’, ‘의료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3.1%이고,
 - ‘교육시설’, ‘상업·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5.4%로 나타남

[표 16] 학력과 필요한 시설과의 관계

단위 : 명

		필요한 시설									
		주거 시설	교통 시설	교육 시설	보육 시설	상업·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공원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체육 시설	전체
학 력	전문대졸 이하	4 14.3%	5 17.9%	0 0.0%	0 0.0%	2 7.1%	16 57.1%	1 3.6%	0 0.0%	0 0.0%	28 100%
	대졸	4 28.6%	2 14.3%	0 0.0%	0 0.0%	0 0.0%	6 42.9%	0 0.0%	0 0.0%	2 14.3%	14 100%
	석사 취득 이상	3 23.1%	3 23.1%	2 15.4%	0 0.0%	2 15.4%	3 23.1%	0 0.0%	0 0.0%	0 0.0%	13 100%
계		11 20.0%	10 18.2%	2 3.6%	0 0.0%	4 7.3%	25 45.5%	1 1.8%	0 0.0%	2 3.6%	55 100%

*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응답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 (중요도 및 만족도) 정주시설들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요도 분석) 9개의 카테고리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여건 요인은 “의료시설 이용 용이성”으로 나타남(4.82)
 -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여건 요인은 주거환경(4.61)으로 나타났음
 - 중요도가 높은 정주여건 요인의 순서는 의료시설 이용 용이성, 주거환경, 상업·편의시설 이용 용이성(4.40)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도가 낮은 정주여건 요인은 공원시설 이용 용이성(4.23)으로 나타남

- (만족도 분석) 9개의 카테고리 모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주여건 요인은 “출퇴근 편이성”이지만 만족도는 ‘보통(3.0)’을 넘지 못하는 2.74 수준임
 - 만족도가 높은 정주여건 요인의 순서는 출퇴근 편이성, 보육시설 이용 용이성(2.53), 교육시설 이용 용이성(2.47) 등임
 -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주여건 요인은 “의료시설 이용 용이성”으로서 만족도는 1.91 수준임
-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정주여건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요인들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된 의료시설 이용 용이성의 경우, 만족도는 가장 낮은 아홉 번째(1.91)로 나타나고 있으며,
 -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된 주거환경의 경우, 만족도는 아홉 개의 요인 중 여섯 번째(2.25)로 나타나고 있으며,
 - 세 번째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된 상업·편의시설 이용 용이성의 만족도는 아홉 개의 요인 중 여덟 번째(2.17)로 나타나고 있음
 -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인 출퇴근 편이성의 경우, 중요도는 아홉 개의 요인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 만족도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보육시설 이용 용이성과 교육시설 이용 용이성은 중요도에 있어서 여섯 번째 요인으로 나타남

[표 17] 서천군 정주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정주시설		중요도	만족도
(1)	주거환경 (건물의 노후정도, 규모, 가격, 다양성 등)	4.61	2.25
(2)	출퇴근 편이성 (대중교통 접근성, 도로여건 등)	4.32	2.74
(3)	교육시설 이용 용이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등)	4.24	2.47
(4)	보육시설 이용 용이성 (유치원, 보육시설 등)	4.24	2.53
(5)	상업·편의시설 이용 용이성 (식당,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4.40	2.17
(6)	의료시설 이용 용이성 (병·의원, 응급의료시설, 보건소, 종합병	4.82	1.91

	원 등)		
(7)	공원시설 이용 용이성 (공원,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등)	4.23	2.29
(8)	복지시설의 이용 용이성 (어린이 복지시설, 여성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4.24	2.31
(9)	문화·체육시설 이용 용이성 (공공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체육 시설, 운동장 등)	4.34	2.22

* 중요도 및 만족도는 5점 척도로서, 5점이 “매우 중요/만족”을 의미함

- (타 지역 이사 의향¹⁾)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대다수(70.5%)는 서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 응답자의 타 지역 이사 의향

단위 : 명, %

이사 의향	빈도	비율
없다	43	70.5%
있다	18	29.5%
	61	

- (서천군 거주기간과 타 지역 이사 의향과의 관계) 서천군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타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5년 이하 거주 집단과 5년 초과 거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5년 이하 거주 집단의 경우, 타 지역 이사 의향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11명, 52.4%)으로 나타나는 반면
 - 5년 초과 거주 집단의 경우에는 대다수(33명, 82.5%)가 타 지역 이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서천군 거주기간과 타 지역 이사 의향과의 관계

단위 : 명

		없다	있다	전체
서천군 거주기간	5년 이하	10	11	21
	5년 초과 ~ 10년 이하	7	2	9
	10년 초과	26	5	31
계		43	18	61

1) 2년 이내(또는 현재 거주지의 계약만료 시) 서천군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에 관한 질문

- (학력과 타 지역 이사 의향과의 관계) 서천군 거주자의 학력과 타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전문대졸 이하’ 집단의 경우, 타 지역 이사 의향이 ‘없다’라는 응답이 89.7%에 이르고,
 - ‘대졸’ 집단의 경우에는 69.2%에 이르지만,
 - ‘석사 취득 이상’ 집단에서는 46.2%로서, 타 지역 이사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53.8%)보다 낮게 나타남

[표 20] 학력과 타 지역 이사 의향과의 관계

단위 : 명

		없다	있다	전체
학력	전문대졸 이하	26 89.7%	3 10.3%	29 100%
	대졸	9 69.2%	4 30.8%	13 100%
	석사 취득 이상	6 46.2%	7 53.8%	13 100%
계		41 74.5%	14 25.5%	55 100%

- (타 지역 이사 의향-장소) 현재 서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서천군 이외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 18명 중 절반이상(55.6%)이 전라북도 군산시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음
 - 충청남도 타 시군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는 3명으로 나타남(보령시, 부여군, 계룡시 각 1명)
 - 기타 세종시(2), 경기도(2), 인천시(1)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의견 있음

[표 21] 타 지역 이사 의향이 있는 서천군 거주자가 고려하는 이사 지역

단위 : 명, %

지역	빈도	비율
충청남도	3	16.7%
전라북도(군산시)	10	55.6%
세종시	2	11.1%
경기도	2	11.1%
인천시	1	5.6%
계	18	

- (타 지역 이사 의향-고려사항)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할 때, 이사를 갈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시설, 상업·편의시설과 의료시설로 나타남
 - 주거시설의 경우, 최우선 고려사항의 경우 절대 다수(44.4%)를 차지하고,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세 번째(22.2%)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 상업·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은 최우선 고려사항의 경우 두 번째(각각 11.1%)로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두 번째 고려사항일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빈도(각각 27.8%)를 보이고 있음

[표 22] 타 지역 이사 고려 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시설	8	44.4%	4	22.2%	1	5.6%
교통시설	0	0.0%	3	16.7%	1	5.6%
교육시설	1	5.6%	0	0.0%	1	5.6%
보육시설	1	5.6%	1	5.6%	0	0.0%
상업, 편의시설	2	11.1%	5	27.8%	3	16.7%
의료시설	2	11.1%	5	27.8%	3	16.7%
공원시설	1	5.6%	0	0.0%	0	0.0%

복지시설	1	5.6%	0	0.0%	2	11.1%
문화, 체육시설	2	11.1%	0	0.0%	7	38.9%
소계	18		18		18	

3. 서천군 비거주자에 대한 설문

- (전체적인 정주여건 만족도) 서천군 비거주자들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응답임
 -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47.8%),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9%와 5.7%에 지나지 않음

[표 23] 서천군 비거주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비율
매우 불만족스럽다	3	1.9%	불만족	7.6%
불만족스럽다	9	5.7%		
보통이다	76	47.8%	보통	47.8%
만족스럽다	62	39.0%	만족	44.7%
매우 만족스럽다	9	5.7%		
계	159			

- (서천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주여건 만족도 비교) 서천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현재 거주지역의 정주여건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두 집단 모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지만,
 - 서천군 거주자 집단은 서천군 비거주자 집단과 비교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함

[표 24] 서천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현재 거주지역 정주여건 만족도 비교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전체
서천군 거주자	3 (4.6%)	16 (24.6%)	36 (55.4%)	6 (9.2%)	4 (6.2%)	65 (100.0%)
서천군 비거주자	3 (1.9%)	8 (5.2%)	76 (49.4%)	59 (38.3%)	8 (5.2%)	154 ¹⁾ (100.0%)
계	6 (2.7%)	24 (11.0%)	112 (51.1%)	65 (29.7%)	12 (5.5%)	219 (100.0%)

* 케이스 결측값 5건 발생

● (타지역 거주 이유) 서천군 비거주자들이 서천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주거시설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음(응답자의 56.5%가 주거시설을 타 지역 거주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함)
- 상업·편의시설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응답하였음. 응답자의 17.5%가 최우선 고려사항(두번째로 많은 응답임)으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하였음(응답자의 32.7%)
- 이외에도 교육시설, 교통시설, 의료시설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판단됨

[표 25] 타 지역 거주 이유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시설	87	56.5%	28	17.9%	16	10.3%
교통시설	9	5.8%	20	12.8%	15	9.6%
교육시설	17	11.0%	13	8.3%	11	7.1%
보육시설	3	1.9%	4	2.6%	3	1.9%
상업, 편의시설	27	17.5%	51	32.7%	35	22.4%
의료시설	8	5.2%	19	12.2%	29	18.6%
공원시설	0	0.0%	3	1.9%	2	1.3%
복지시설	1	0.6%	2	1.3%	4	2.6%
문화, 체육시설	2	1.3%	16	10.3%	41	26.3%

소계	154		156		156	
무응답, 불량응답	4		2		2	
계	158		158		158	

* 각 우선순위마다 “소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응답 설문과 응답불량 설문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 (서천군 이사 의향) 서천군 비거주자의 경우,
서천군으로 이사를 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 158명 중 24.1%인 38명임

[표 26] 서천군 이사 의향

단위 : 명, %		
이사 의향	빈도	비율
없다	120	75.9%
있다	38	24.1%
	158	

- (서천군 이사 의향-고려사항) 서천군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응답자들은 주거시설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선택하였음(68.4%)

-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68.4%가 선택하였고,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도 21.1%의 응답자가 선택
- 주거시설의 뒤를 이어 교육시설(4명, 10.5%), 상업·편의시설(3명, 7.9%) 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응답

[표 27] 서천군으로 이사할 경우 고려사항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시설	26	68.4%	8	21.1%	0	0.0%
교통시설	2	5.3%	6	15.8%	2	5.3%
교육시설	4	10.5%	4	10.5%	6	15.8%
보육시설	0	0.0%	3	7.9%	1	2.6%
상업, 편의시설	3	7.9%	7	18.4%	15	39.5%
의료시설	2	5.3%	4	10.5%	3	7.9%
공원시설	0	0.0%	1	2.6%	2	5.3%
복지시설	1	2.6%	1	2.6%	0	0.0%
문화, 체육시설	0	0.0%	4	10.5%	9	23.7%
소계	38		38		38	

4. 가족구성원에 관한 설문

- 설문에 응답한 유효응답 215명(무응답 13명은 분석에서 제외) 중 기혼자는 152명(유효응답의 70.7%)이고, 미혼자는 63명임(유효응답의 29.3%)
 - 유효응답 중 절반이 가족과 같이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혼자 152명 중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경우는 59명(38.8%)이고, 미혼자 63명중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경우는 49명(77.8%)으로 나타남
 - 미혼자의 경우, 대부분(약 78%)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결혼 여부 및 가족 동거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족 동거여부		전체
		같이 삼	따로 삼	
결혼 여부	기혼	93	59	152
	미혼	14	49	63
전체		107	108	215

- (가족들의 주거지)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경우, 가족들의 주거지는 다양하게 나타남
 - 가장 많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로 유효응답 107명 중 29.0%인 3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충청남도(14명, 13.1%), 경기도(13명, 12.1%), 전라북도(9명, 8.4%)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외의 시·도는 2~6명씩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 (떨어져 사는 이유)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이유 중의 대다수는 직장과 관련된 것이었음
 - ‘응답자’의 직장으로 인하여 떨어져 산다는 이유가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배우자 또는 부모’의 직장으로 인하여 떨어져 산다는 이유가 27.2%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의 응답에도 ‘가족구성원’의 직장(1), ‘자녀’의 직장(2)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총 3건 있음
-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9.6% 수준으로 나타남
- 기타에는 자녀의 직장(2), 결혼(2), 가족구성원의 직장(1), 육아(1), 귀촌(1), 분가(1), 퇴직 후 귀향(1) 등의 내용이 있음

[표 29]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이유

지역	빈도	단위 : 명, %
		비율
자녀들의 교육	11	9.6%
배우자/부모의 직장	31	27.2%
응답자의 직장	61	53.5%
기타	11	9.6%
계	114	

* 주 : 합계의 숫자가 108을 넘는 이유는 중복응답을 포함하였기 때문임

03

설문 분석 요약

- 본 연구는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서천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임
 - 서천군에는 현재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입지해 있음. 본 연구는 해당 2개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천군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설문에 대한 응답은 국립생태원 146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2부로 총 228부의 응답설문을 분석하였음
- (표본의 일반적 성격) 회수된 설문응답 228부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의 분석에는 2개 기관의 연구원(研究員)들 뿐 만 아니라, 비연구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음
 -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라북도(155명, 68.0%)와 충청남도(66명, 28.9%)에 거주하고 있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군산시(144명, 63.2%)와 서천군(65명(28.5%))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216명, 94.7%), 통근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89.0%)
 - 응답자의 30.0%(64명)가 대졸자이며, 박사취득자(54명, 25.4%)와 석사취득자(53명, 24.9%)의 수는 비슷하게 나타남

- (서천군 거주자에 관한 내용) 서천군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65부의 설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천군 거주기간)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65명) 중 서천군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22명, 33.8%), 30년 초과 거주자도 27.7%(21명)를 차지하고 있음
 - (서천군 거주이유) 서천군 거주자가 서천군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 서천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35명, 53.8%)이며, 다음으로 고향이기 때문(21명, 32.3%)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음

-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 서천군 거주자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절반이상(55.4%)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보다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불편시설) 서천군의 정주시설 중에서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설은 의료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로 파악됨
 - (필요시설) 서천군의 정주시설 중에서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의료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로 파악됨. 대체적으로 불편시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개별 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 설문에 나타난 9개의 카테고리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족도는 모두 낮게 나타남
 - (개별 요소별 중요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여건 요인은 “의료시설 이용 용이성”이며,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여건 요인은 주거환경(4.61)임
 - (개별 요소별 만족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주여건 요인은 “출퇴근 편이성”이지만 만족도는 ‘보통(3.0)’을 넘지 못하는 2.74 수준이며,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정주여건 요인은 출퇴근 편이성, 보육시설 이용 용이성(2.53) 등임
 -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정주여건 요인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요인들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타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대다수(70.5%)는 서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 이사 의향 : 장소, 고려사항) 서천군 이외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이상(55.6%)이 전라북도 군산시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 갈 지역의 주거시설, 상업·편의시설, 의료시설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

- (서천군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서천군 거주자를 거주기간에 따라 정주여건, 정주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서천군 거주기간과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와의 관계) 서천군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서천군 거주기간과 불편시설과의 관계) 거주기간에 따라 불편하게 느끼는 시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서천군에 오래 거주한 집단(거주기간 10년 초과 집단)의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46.9%), 서천군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집단은 의료시설(28.6%), 상업·편의시설(23.8%), 교통시설(23.8%)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서천군 거주기간과 필요시설과의 관계) 거주기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간에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두 집단 모두 가장 필요한 시설로 의료시설을 꼽고 있음
 - (서천군 거주기간과 타 지역 이사 의향과의 관계) 서천군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집단은 타 지역 이사 의향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2.4%)으로 나타나는 반면,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다수(82.5%)가 타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서천군 거주자의 학력에 따라 정주여건, 정주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학력과 서천군 정주여건 만족도와의 관계) '석사 취득 이상'인 집단에서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과 불편시설과의 관계) 학력에 따라 불편하게 느끼는 시설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전문대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의 경우,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의료시설’로 각각 41.4%와 46.2%의 응답자가 응답
 - ‘석사 취득 이상’ 집단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주거시설’로 나타남(30.8%)
 - (학력과 필요시설과의 관계) 학력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문대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의 경우, ‘의료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각각 57.1%와 42.9%의 응답률)하였으나,
 - ‘석사 취득 이상’ 집단에서 ‘주거시설’, ‘교통시설’, ‘의료시설’(이상 각각 23.1%의 응답률), ‘교육시설’, ‘상업·편의시설’(이상 각각 15.4%의 응답률)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골고루 나옴
 - (학력과 타 지역 이사 의향과의 관계) ‘전문대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이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만(각각 89.7%와 69.2%), ‘석사 취득 이상’ 집단에서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53.8%)
- (서천군 비거주자에 관한 내용) 서천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63부의 설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 거주지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 서천군 비거주자들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정주여건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는 응답임
 - (타 지역 거주 이유) 서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주거시설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상업·편의시설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응답하였음
 - (서천군으로 이사 의향, 고려사항) 서천군 비거주자의 경우, 유효 응답자의 24.1%는 서천군으로 이사를 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거시설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선택하였음(68.4%)

04 정책제언

- 서천군은 획기적인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구규모가 적고,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천군은 군산시와 비교·경쟁하여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음
 - 설문조사의 ‘응답자 거주지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응답자들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음(응답자의 63.2%)
- (대상 집단의 차별화를 통한 정책 필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대상 집단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이들을 서천군에 정주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 모든 시설요인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집단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어느 한 시설요인의 개선이 다른 시설요인의 감소를 의미하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님
 - 설문조사 결과, 집단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서천군 거주자의 경우) 서천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집단은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서천군 거주기간이 짧고, 학력이 ‘석사 취득 이상’인 집단은 교통시설 및 상업·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비서천군 거주자의 경우) 비서천군 거주자는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성주체로서 기업유치 및 주거 수요를 감안해 단지 내 주거용지를 조성 중에 있음
 - 주거시설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 넓이, 가격 등을 고려한 주택 공급계획 필요
 - 기업유치에 따른 외부 유입인구 수용을 위해 입주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방안 등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충청남도-서천군-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서천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필요